



"미친개 범 물어 간 것 같다"

뜻: 나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던 것이 없어져서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때 쓰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해소 · 골칫거리 · 안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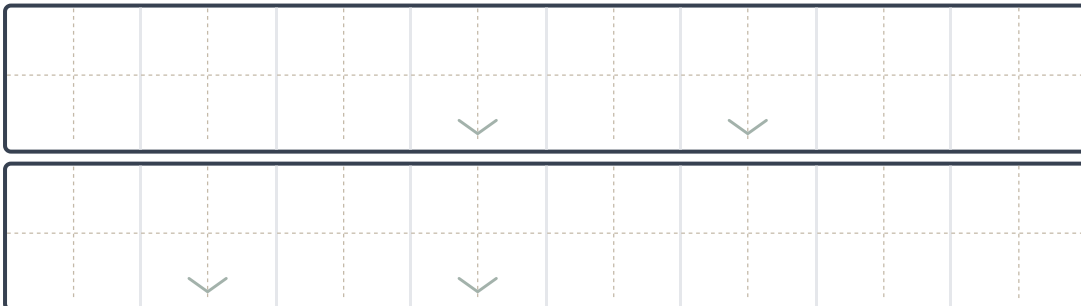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미][친][개][범][물][어][간][것][같][다]

웹에서 보기

